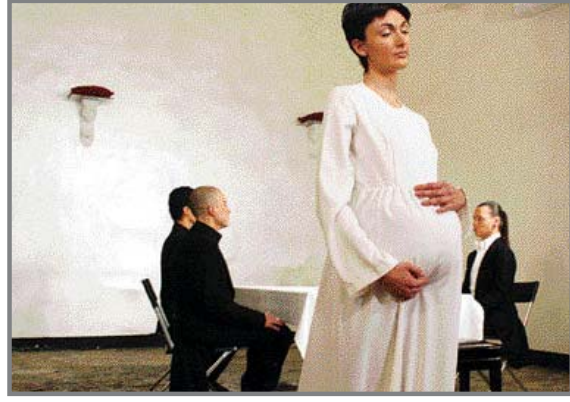


이불 작 '백두산'



주세페 스타포네 작 '게임의 법칙'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 작 '궁정의 문'

5·18 30주년 '지구촌 예술꽃' 피운다

5·18광주민중항쟁을 예술로 꽃피운다. 5월항쟁 30주년을 맞아 오는 5월12일~6월13일 광주시립미술관과 동구급남로 옛전남도청 일대에서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참여하는 전시회와 국제학술회의 등 대규모 미술행사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비엔날레재단은 18일 오후 비엔날레재단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민중항쟁 30주년 기념 '오월의 꽃' 전시회 구성 내용을 발표했다.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전달해주는 것에 머물렀던 과거의 5·18 관련 전시에서 벗어나 광주정신을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으로 재해석하는 문화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의 책임 큐레이터는 이용우 광주비엔날레재단 상임부이사장이 맡고 큐레이터에는 조인호 광주비엔날레 특별 프로젝트 부장과 윤의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실장이 선임됐다.

행사는 크게 전시회, 국제학술회의, 공연퍼포먼스를 꾸려지고 민주, 인권과 관련된 국내외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 공간 등을 담은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 초대 작가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고 백남준, 변중근, 이경호, 이불 등 국내 대표작가들과 아르투 린지, 주세페 스타포네, 매튜 슈라이버, 도미니크 곤잘레스 포스터, 알프레도 자르 등 해외 유명 작가들이 참여한다.

전시는 옛 전남도청 앞에 컨테이너 박스로 구성된 임시 전시공간인 '콘스트랄레광주'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콘스트랄레광주'는 옛 전남도청 앞에 연면적 1천19㎡, 건축면적 520㎡ 규모의 컨테이너 박스 29개로 만들어진 공간으로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오는 2014년까지 문화예술센터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곳에서는 평면과 미디어 설치작업, 비디오 영상, 옥외 설치작품 등이 전시된다.

국제학술회의는 오는 5월11일부터 이불 간 전담대 응

5월12일~6월 13일 '오월의 꽃' 전

국내의 유명 작가 참여 단순전시 탈피

국제학술회의 등 대규모 미술행사도

페 스타포네, 매튜 슈라이버, 도미니크 곤잘레스 포스터, 알프레도 자르 등 해외 유명 작가들이 참여한다.

전시는 옛 전남도청 앞에 컨테이너 박스로 구성된 임시 전시공간인 '콘스트랄레광주'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콘스트랄레광주'는 옛 전남도청 앞에 연면적 1천19㎡, 건축면적 520㎡ 규모의 컨테이너 박스 29개로 만들어진 공간으로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오는 2014년까지 문화예술센터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곳에서는 평면과 미디어 설치작업, 비디오 영상, 옥외 설치작품 등이 전시된다.

국제학술회의는 오는 5월11일부터 이불 간 전담대 응

보문화관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이 학술회의에는 제8회광주비엔날레 주제인 '만인보'의 저자 고은 시인, 케이 소피 스위스바젤 아트페어 감독, 마미 카타오가 도쿄 모리미술관 수석큐레이터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또 영국 골드스미스 칼리지의 정치철학자 리처드 노블 교수, 일본의 대중문화비평가인 히사시 무로이(요코하마 대학 교수), 오쿠이 엔위저(7회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등 유명인사들도 참여해 현대미술 담론을 논의하게 된다.

이들은 '대중과 예술, 그리고 시장'이라는 주제로 광주 정신의 정신적, 예술적 가치도 조명한다.

또 5월11일 전남대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공연퍼포먼스에서는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 광주의 에너지와 민중의 지혜를 모는 행위예술을 선보인다.

미국 출신 인권가수인 아르토 린세이의 공연이 펼쳐지고, 관객들과 함께 '광주'라는 이름의 조각품을 만들어 내던 9월 프랑스 랑그르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이용우 광주비엔날레 상임부이사장은 "과거의 역사를 조명하는 전시라기 보다는 5·18 정신이 우리 삶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공연예술재단 공식 출범

市 추진 공연행사 총괄 진행... 이사장 영입·직원 공채

광주국제공연예술제 등 시에서 추진하는 공연행사를 총괄해서 진행할 (재)광주공연예술재단(이하 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광주시는 1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재)광주공연예술재단 발기인 총회를 열고 이사회 구성과 정관 제정 등을 마무리했다.

이사회는 당연직인 송귀근(광주시 행정부시장), 문봉주(광주시 문화정책실장)씨 이외에 오건탁(광주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최규철(광주예총 회장), 최영화(광주연극협회장), 정해경(광주무용협회장), 윤재근(광주음악협회장), 구천(광주시립합창단장), 임해철(호남신학대 교수)씨가 선임됐다.

초대 이사장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로 영입할 예정이며 선임전까지 송행정부시장이 이사장을 맡는다.

재단은 2010년 광주국제공연예술제와 정음성국제음악제, 전국여성합창경연대회 3

개 대형 공연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별 조직위원회는 위원장과 예술감독 등 7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며 3개 행사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기획조정위원회도 꾸릴 예정이다.

재단 기금은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시가 4억원을 출연했다. 재단 사무실은 구 시립미술관을 활용한다.

시는 미술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연 예술분야 발전을 위해 재단 출범을 구상했으며 (재)광주비엔날레와 함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문화를 견인하는 단

체로 키운다는 복안이다.

한편 재단은 사무국 직원을 공채한다. 공연기획실장, 사무국장, 사무직원 등 모두 6명으로 3월중 공모를 진행한다. 채용공고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13-346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남도의 바다·무등산 '서울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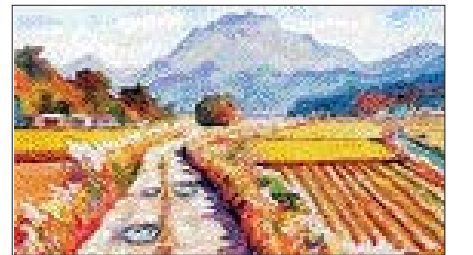
황기록 전-갤러리라이트

남도 바다와 무등산 등지를 투명한 수채화로 담아내고 있는 황기록씨가 오는 23일 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서울 인사동 분관인 갤러리라이트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수채여행'을 주제로 여수, 청산도, 제주도 등지의 바다 풍경을 담은 작품 등을 선보인다.

자연스러운 물을 번짐과 겹침을 통해 원근감을 표현했고, 옅은 빨강과 노랑색을 사용해 색의 단조로움도 피했다.

눈 덮인 무등산의 웅장함과 설악산의 풍경 등 수도 수채화에서 느낄 수 있는 단아한 색채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무등산 가는길'

그는 한국미협전, 대한민국수채화작가전, 광주-가고시마 교류전, 히로시마 평화미술전 등 다수의 전시회에 참여했다. 현재 대한민국수채화작가협회 이사, 광주사생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2-725-004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아세안 전통오케스트라 광주무대

5월 19일 문예회관에서 5·18 30주년 기념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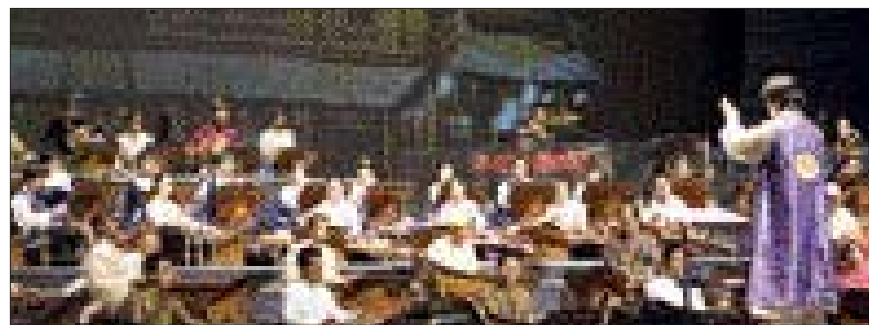
가야금 등 한국과 아시아 각국의 전통 악기로만 구성된 '한-아세안전통오케스트라'(이하 전통오케스트라)가 광주 대우무대를 갖는다.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은 16~17일 서울과 광주 라마다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 4차 한-아세안 문화자원 협력회의'에서 전통오케스트라의 2010 공연 일정과 운영 방안 등을 확정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거점으로 활동하게 될 '전통오케스트라'는 오는 5월 19

일 광주문예회관에서 5·18 30주년 기념 공연을 펼친다. 지난해 5월 창단 후 서울과 제주에서 연주를 선보인 적은 있지만 광주 공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교육대회 서울 개최를 기념해 오는 5월 24일 고양아름누리극장 무대에 오르며 10월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 기념 공연을 펼친다.

참석자들은 또 전통오케스트라 활성화



오는 5월 광주에서 공연을 갖는 '한-아세안전통오케스트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제공)

를 위해 예술감독제를 도입하고 오케스트라 단원을 활용한 앙상블 공연단도 운영키로 했다.

그밖에 이번 회의에 참가한 아시아 각국은 아시아월드 뮤직페스티벌, 아시아 전통음악 자원 개발, 아시아 예술극장 공연에

술 작품 개발 등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모하트 야지드 자카리아 등 참석자들은 18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보관과 광주문예회관을 방문했으며 광주국악협회와 교류 시간도 가졌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난초는 그윽하여 향풍이 멀리가고...

이월희 전... 서울이형아트센터

서예가 이월희씨가 오는 23일까지 서울 이형아트센터에서 목향 그윽한 글씨를 풀어 놓는다. 이씨는 이번 전시에서 단아하고, 살아 움직이는 듯 생동감 있는 글씨체를 선보인다. 자연스럽게 화선지에 스민 글씨체의 아름다움도 볼만 하지만 글씨에 담긴 철학과 뜻도 삶의 교훈을 준다.

'난초는 그윽하여 향풍이 멀리가고' 등 아름다운 뜻과 '이슬 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등 생활의 지혜를 엿볼 수 있게 하는 교육적인 글들이 많다.

이씨는 학생 이문홍 선생을 사사하고 원광대 동양대학원 서예학과를 졸업했다. 대



'금란'

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동아미술대전 입성 등을 수상했으며, 대한민국서예대전과 광주시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한중서법교류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등의 전시회에 참여했고 현재 국제서예협회, 연우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2-736-4806.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목포 씨월드고 속해리 대리점
개석 특별상품 (3억권)
인라인 등산 1박2일
1인 75,000원 (4인기준)

각종 상품
1인 135,000원 (4인기준)
3인 1인 135,000원
1인 75,000원

062-671-1199
 광주광역시 동구 동천동 1-10-10
 씨월드고 속해리 대리점

아이엔리시아
고품질 메뉴, 건강한 맛, 불국없는 서비스 (500석 침베)

● **음식** : 2인식, 3인식, 4인식, 5인식, 6인식
 ● **코스(2인)** : 1인식, 2인식, 3인식, 4인식, 5인식
 ● **코스(3인)** : 1인식, 2인식, 3인식, 4인식, 5인식, 6인식, 7인식

062-671-1199
 영스퀘어 타워빌 2층 COV 빌